



www.akht.or.k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의 영향관계 분석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 perceived value and revisit intention of Chinese female medical tourist to Korea

최사라* · 정은성** · 홍경희*** · 손민영****

Choi, Sa-Ra · Jeong, Eun-Seong · Hong, Kyung-Hwa · Son, Min-Young

* 호남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myvenus73@gmail.com, 관심분야: 의료관광, 항공서비스경영

**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eunseong@honam.ac.kr, 관심분야: 관광개발, 서비스경영(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hongkang1219@gmail.com, 관심분야: 관광개발, 관광지리

**** 청암대학교 호텔항공서비스과 초빙교수, min0202@nate.com, 관심분야: 항공서비스경영, 관광마케팅

요약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영역이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와 관광 서비스가 결합된 관광의 한 분야이다. 많은 국가들이 차별화 전략과 서비스 정책들의 수립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관광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39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나 최종 분석에는 총 302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변수의 정화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6.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지역정보성, 비용성 및 접근성 3개 요인들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들은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용을 고려한 고품질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용어

의료관광,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ABSTRACT

Medical tourism has become a popular option for tourists globally, which encompasses predominantly and primarily medical procedures combined with tourism service. Medical tourism is being promot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through competitive strategies, services, policies and so on. Following from the abov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s, perceived value, and revisit intention. The study conducted a field survey of Chinese female medical tourists in South Korea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31, 2019. A total of 43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with 302 usable for the fin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preliminary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cale purification, were calculated using SPSS version 26.0, following whi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alculated using AMOS version 26.0.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ree sub-factors of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s, destination information, cost and accessibi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for medical tourists while word-of-mouth did not. Additionally, perceived value of medical tourism in South Korea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visit intention of medical tourist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at a reasonable cost to medical tourists in order to boost medical tourism in South Korea.

KEYWORDS

medical tourism, tourist destination, selection attributes, perceived value, revisit intention

ACCEPTANCE INFO

2021.09.10. 원고 접수
2021.09.25. 1차 수정본 접수
2021.09.30. 2차 수정본 접수
2021.09.30. 최종 수정본 접수
2021.09.30. 최종 게재 확정
3인 익명심사필

I. 서론

의료관광은 타 관광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후발적 관광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대 로마제국 귀족들이 나폴리(Napoli)에서 온천욕을 통한 질병 치료 및 심신 휴양을 한 기록을 통해 의료관광의 역사는 관광을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기 이전부터 개인의 타 지역 방문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O'Gorman, 2007).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진 의료관광은 각국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광의 한 분야이다(이희경·윤병국, 2021). 한국에서도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윤병국·이은미, 201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의료관광호텔업을 규정하는 등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국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2.7%의 성장세를 보였다(임영이, 2020).

의료관광을 의료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의료기술 수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자신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초석인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을 측정할 수 있는 수용태세 관련 요인이 바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다(최정환·김종건, 2021; Jo et al., 2019). 관광객은 자신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목적지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 정보 등에 따라 관광지를 선택하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진동봉·박현지, 2021). 따라서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서비스를 받기 위한 관광목적지 방문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심리적 요인인 선택속성에 대한 개선과 관광객이 관광활동으로 얻는 혜택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각된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신형섭, 2019).

정보의존도가 높은 의료관광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객은 자신의 의료관광 체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지각된 가치로 의료관광을 평가하며 의료관광 목적지에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서민정·임은순, 2021; Dagevos & van Ophem, 2013). 따라서 의료관광객은 자신의 정주지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며,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함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및 지각된 가치를 통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의료관광 선호지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만족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이며, 동시에 의료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한진석, 2020).

의료관광객이 지각하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를 통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관광객이 자신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체험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의료관광객이 특정 국가, 지역, 의료기관을 의료관광 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심리적 태도인 재방문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김주연·안윤주, 2016; 서헌 등, 2008; 송아남·송광인, 2021; 송학준, 2012; 정윤희·오치욱, 2017; 한도령, 2017; Chang et al., 2014; Ahn & Kwon, 2020), 유사하게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과 재방문의도(손혜·방원석, 2019), 행동의도(박호표, 2012), 방한의도(이난희 등, 2016)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정홍교 등, 2012), 재방문의도(축청·오석윤, 2016)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의 영향관계를 제시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열해지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에서 국내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한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수용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료관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도출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관광시장에서(Abbaspour et al., 2021) 한국 의료관광의 비교우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의료관광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융합한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정유리, 2019). 코로나 팬데믹 이전, 국제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성장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낮으면서도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의료관광 활동 증가를 의료관광시장 성장요인으로 보고 있다(김혜영 등, 2019; Kaushik & Rustagi, 2020). 일반적으로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의료관광객들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의료시술과 관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료관광 수요증가로 국제 의료관광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Kim et al.,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의료관광객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목적지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관광시설, 자원과 같은 긍정적 속성들과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 서비스, 장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남은경 · 이승근, 2018; 이현중, 2020).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활동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상, 아이디어, 신념의 총체로서 관광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소영 등, 2019).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목적지에 대한 사전 인식부터 지각, 선택, 행동 및 사후적 평가에 걸친 관광활동의 모든 과정과 연결된다(김현 등, 2019). 따라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활동 이전의 심리적 태도와 이후의 만족과 사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독립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Qu et al., 2021).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연구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봉구(2009)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관광객 준비태세, 관광목적지 매력물, 즐길거리 및 관광목적지 접근성의 4개 요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호표(2012)는 국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을 의료관광지 인프라 및 인지도, 의료전문성 및 의료기관 명성, 의료비용 및 정책지원, 환자관리 및 병원운영 그리고 의료윤리 및 의료서비스 5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최일선 등(2019)에 따르면, 섬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을 자연환경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및 여행합리성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Cham et al.(2021)은 중국인 관광객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선택속성을 지역정보 지식, 안전성, 접근성, 비용성, 구전성, 홍보성 5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의 영향관계가 있는 요인들과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현 등(2014)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이병관 · 김원(2020)의 연구에서는 제주 올레길 방문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서비스 품질지각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지역적 매력성이 관광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진동봉 · 박현지(2021)는 중국 국내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 관광목적지 이미지와의 영향관계 분석에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관광목적지의 인지적 이미지에 정서적 이미지보다 더 높은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만족, 행동의도, 참여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제시하였다(김미경 · 김보경, 2012; 박호표, 2012; 이주현 · 김홍범, 2018). 따라서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에서 의료관광 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의료관광객의 심리적 만족과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각된 가치

일반적으로 가치는 신념, 태도 및 행동을 이끄는 기준으로 관광산업에서는 관광객이 주관적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상태이다(김민경, 2020). 이러한 측면에서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이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큰 가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함에 있어 그 가치를 인지하는 심리적 태도로 접근할 수 있다(박창연 · 이충기, 2018).

또한, 지각된 가치가 한 개인이 소비활동을 통해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Chen & Chen, 2010), 지각된 가치는 각각 다른 시간, 고객 및 문화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이며 역동적으로 그 개념이 구성되어 소비자의 의식 속에 생성되는 주관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Eid, 2015). 따라서 지각된 가치를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판단과정과 행동을 도출시킬 수 있는 주관적 신념으로 볼 수 있다(신형섭, 2019).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가치의 구성요인을 다차원으로 접근하거나, 다차원 요인을 측정변수들로 구성하여 단일차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혜정 등(2020)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기능적 가치 2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혜 등(2018)에 따르면, 축제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기능적 가치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한나 등(2021)은 섬 여행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경제적 가치로 구성하였으며, 김건휘(2021)는 슬로시티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기능적 및 경제적 가치 3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기준(2021)은 식물박물관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를 정서적, 기능적 및 휴양·휴식적 가치 3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진석(2020)은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의 지각된 가치를 실용적 및 쾌락적 가치 2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성욱·김정수(2020)는 스마트관광 정보기술 체험객의 지각된 가치를 단일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Haji et al.(2021)은 섬 여행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객 또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 또는 단일차원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 소비자가 자신의 관광 및 소비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가치의 개념과 구성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 행동에 영향변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도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천덕희·홍경완(2018)은 부산 국제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박람회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임애선·전재균(2020)은 중국인 관광객의 케이블카 체험요소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각된 가치는 체험요소와 만족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축청·오석운(2016)은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중 사회적, 기능적 및 건강적 가치가 의료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alza et al.(2018)은 크루즈 관광객의 크루즈선 환결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Zhang et al.(2020)은 네팔(Nepal)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네팔 국가 이미지와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각된 가치의 개념, 구성요인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 목적지에서의 관광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관광객의 심리적 반응과 태도로서 의료관광객의 이후 행동의도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방문의도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를 방문한 이후, 다시 그 관광지를 재방문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되면서(서재연 등, 2021), 많은 관광마케팅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관광지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관광지의 재방문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재방문의도를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이후,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신념으로(송아남·송광인, 2021), 태도에 비해 향후 관광객의 활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엄지영·음영철, 201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방문의도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미 방문한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행위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수훈·박현지, 2021). 재방문의도는 행동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가 높아지며(Ajzen, 1991), 관광객의 신념과 태도에 따른 앞으로 행할 행동의도를 나타내며, 과거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이다(차경옥, 2021). Westbrook & Oliver(1991)는 재방문의도를 서비스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윤홍권·권혁인(2020)은 관광활동에 의한 관광객이 관광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으로 이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행해지는 행위적 의도를 재방문의도라고 하였다.

재방문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방문의도는 과거에 관광지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로 관광객 확보에 있어 중요한 결과변수로 사용되고 있다(성헌아·이애주, 2019; 한도령, 2017; Cronin & Taylor, 1992). 금강 등(2021)은 재방문의도란 행동적 태도의 관점에서 호텔 중식당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호텔 중식당의 경험가치가 태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오세진·김철중(2020)은 재방

문의도를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주제공원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승익(2019)은 향토음식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축청·오석운(2016)의 연구에서는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손혜·방원석(2019)은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선택속성과 재방문의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방문의도는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여 의료관광활동을 영위한 이후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을 통해 특정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변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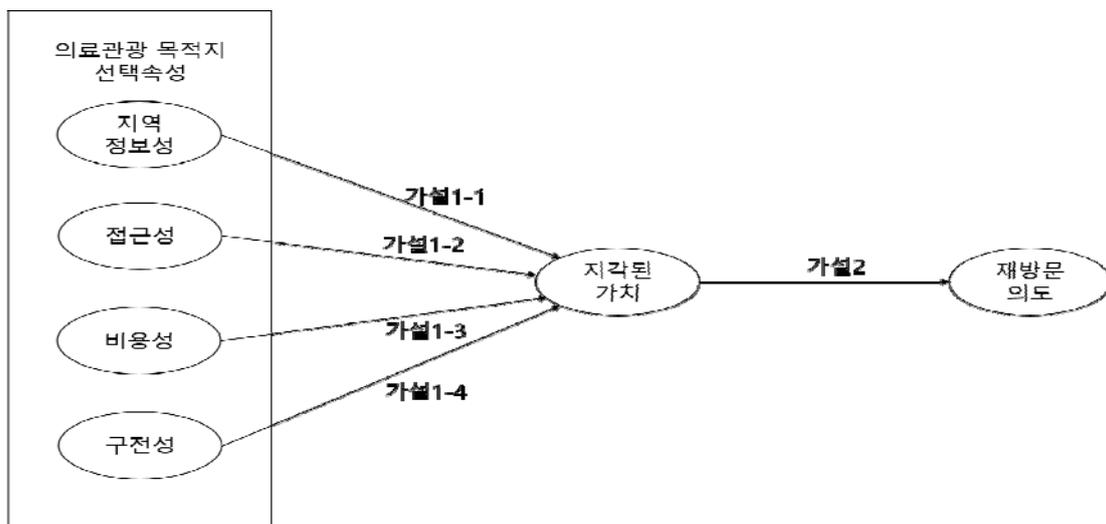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송학준(2012)과 정윤희·오치옥(2017)의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영남(2020), 오은비 등(2019), 윤희권·권혁인(2020)의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택하게 되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선택속성은 그들이 의료관광 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심리적 태도인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체험 이후 발생하는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가치는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1. 지역정보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접근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3. 비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측정항목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진료과 중 성형외과와 치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정을 위해 전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A성형외과와 B치과를 방문한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지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공간 및 대상적 범위를 고려하여 측정항목을 의료관광객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로 구성하였다. 현장 설문조사는 A성형외과와 B치과의 협조를 구해 본 연구의 목적이 포함된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접수 데스크에 비치하여 설문조사 희망하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9부를 회수하였으나, 실증분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치(outlier)와 일방향으로 표기하거나, 전체 문항 중 20% 이상을 무응답한 설문지 137부를 제외한 후, 총 302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1>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 요인과 측정항목

요인	변수명	항목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역정보성1(RI1)	나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지역정보성2(RI2)	나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역정보성3(RI3)	나는 한국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있다
	지역정보성4(RI4)	나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을 알고 있다
	접근성1(A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 직항노선이 있다
	접근성2(A2)	한국의 입국절차는 타국에 비해 간소하다
	접근성3(A3)	한국의 교통환경은 편리하다
	접근성4(A4)	중국에서 한국까지 접근하기는 타국에 비해 편리하다
	구전성1(W1)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은 신뢰하고 있다
	구전성2(W2)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을 내 가족 및 지인은 적극 추천하였다
	구전성3(W3)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들었다
	구전성4(W4)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타국과 비교하여 긍정적 평가를 들었다
	비용성1(C1)	한국의 의료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성2(C2)	한국의 의료비는 서비스 대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용성3(C3)	한국의 의료비는 타국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1(PV1)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2(PV2)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국제적 상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3(PV3)	한국의 의료관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4(PV4)	한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방문의도	재방문의도1(RV1)	나는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재방문의도2(RV2)	나는 향후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방문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할 의사가 있다
	재방문의도3(RV3)	나는 만약 의료서비스를 타국에서 받게 된다면,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을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신념의 총체로 정의하고, 박호표(2012), 최일선 등(2019), Cham et al.(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을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및 비용성 4개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경험을 통해 생성되는 정서적 및 주관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가경혜 · 김진옥 · 이충기(2018), 조한나 등(2021), 김건휘(2021), 윤성욱 · 김정수(2020), Haji et al.(2021)의 연구를 토대로 총 4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료관광객의 재방문의도는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재방문하고자 하는 주관적 행동의도로 정의하고, 오세진 · 김철중(2020), 금강 등(2021), 성현

아·이애주(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3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요인인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의 측정변수들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코딩화(coding) 작업을 거쳐 SPSS 26.0을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줄기잎 도표 분석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 측정변수를 표준화 계수인 z값으로 변환하고,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검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을 정화(purification)하였다. 이후,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분석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2단계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집단의 일반특성 분석

표본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이 160명(53.0%)으로 '기혼' 142명(47.0%)보다 높았고, 연령 분포는 '20대'가 109명(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가 76명(25.2%), '40대'가 63명(20.9%), '50대'가 38명(12.6%), 그리고 '60대 이상'이 16명(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 분포는 '대학교 졸업'이 138명(45.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108명(35.8%), '전문대 졸업'이 43명(14.2%), '대학원 졸업'이 13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집단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이 78명(25.8%), '사무/서비스직'이 77명(25.5%), '전문직'이 40명(13.2%), '전업주부'가 39명(12.9%), '교육직'이 24명(7.9%), '자영업'이 19명(6.3%), '공무원' 17명(5.6%), '기술직' 8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 목적지 지역분포는 '서울/인천/경기' 136명(45.0%)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 83명(27.5%), '대구/경북' 38명(12.6%), '대전/세종/충남/충북' 37명(12.3%), '광주/전남/전북' 8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n=302)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결혼여부	미혼	160	53.0	의료 관광지	서울/인천/경기	136	45.0	
					대전/세종/충남/충북	37	12.3	
	기혼	142	47.0		광주/전남/전북	8	2.6	
					부산/울산/경남	83	27.5	
					대구/경북	38	12.6	
연령	20대	109	36.1	학력	고졸 이하	108	35.8	
	30대	76	25.2		전문대 졸업	43	14.2	
	40대	63	20.9		대학교 졸업	138	45.7	
	50대	38	12.6		대학원 졸업	13	4.3	
	60대 이상	16	5.3		지출비용	200만원 이하	140	46.4
	직업	전문직	40			13.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9
사무/서비스직		77	25.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2	17.2	
교육직		24	7.9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	5.0	
자영업		19	6.3	500만원 이상		16	5.3	
공무원		17	5.6					
기술직		8	2.6					
학생		78	25.8					
전업주부		39	12.9					

2. 측정항목 정화

본 연구의 신뢰도 검정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22개 항목 중 신뢰성을 저해하는 3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총 19개의 항목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세부 요인으로는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비용성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전체 분산설명력은 71.490%의 총 변량으로 나타났고, KMO값은 .881이며, Bartlett 구형성검정은 유의확률 .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 항목의 공통성은 .619~.853으로 제시되었고, 요인 적재량은 .593~.880으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크론바하 알파 검정 결과, 모든 요인들의 알파계수가 .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Cronbach's α
지역정보성	RI1	.651					.741		.771
	RI2	.754					.833		
	RI4	.633					.727		
접근성	A1	.827			.816				.851
	A2	.853			.880				
	A3	.733			.691				
구전성	W1	.671	.779						.877
	W2	.824	.856						
	W3	.843	.878						
	W4	.766	.782						
비용성	C1	.619				.721			.691
	C2	.633				.678			
	C3	.649				.792			
지각된 가치	PV2	.626					.593		.777
	PV3	.759					.817		
	PV4	.714					.727		
재방문 의도	RV1	.713		.733					.867
	RV2	.807		.861					
	RV3	.693		.722					
아이겐 값 (% 분산)	요인 1 : 3.122(16.433%), 요인 2 : 2.233(11.691%), 요인 3 : 2.211(11.633%)								
	요인 4 : 2.121(11.271%), 요인 5 : 2.007(10.333%), 요인 6 : 1.886(10.129%)								
전체 분산설명비율=71.490%, KMO=.881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3079.911, 자유도=171 유의확률=.000									

3.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χ^2/df , TLI, NFI, CFI, RMSEA를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221$ 로 기준치 3 이하로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TLI=.921, NFI=.932, CFI=.947로 측정모델 타당성 기준 TLI \geq .9, NFI \geq .9, CFI \geq .9의 범위에 있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충기, 2016). RMSEA는 .054로 나타나 모델의 최적 수준인 RMSEA \leq .05에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RMSEA가 .08 이하로 나타나 모델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모델은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김계수,

2010). 다음으로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든 하위 요인들의 표준적재치는 .621 ~.941로 기준값 .5를 상회하였고, 개념신뢰도는 .806~.920으로 기준치 .7 이상이었으며, 분산추출지수는 .580~.808로 기준치인 .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5>와 같이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명	표준적재치	오차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지역정보	지역정보1	.621	.334	.832	.625
	지역정보2	.784	.271		
	지역정보4	.701	.291		
접근성	접근성1	.849	.219	.889	.729
	접근성2	.851	.287		
	접근성3	.778	.257		
구전성	구전성1	.701	.321	.943	.808
	구전성2	.941	.074		
	구전성3	.887	.121		
	구전성4	.859	.174		
비용성	비용성1	.713	.372	.806	.580
	비용성2	.747	.336		
	비용성3	.694	.412		
지각된 가치	지각가치2	.700	.262	.844	.645
	지각가치3	.661	.332		
	지각가치4	.779	.251		
재방문 의도	재방문1	.824	.131	.920	.793
	재방문2	.796	.155		
	재방문3	.745	.201		
$\chi^2/df=2.221$, TLI=.921, NFI=.932, CFI=.947, RMSEA=.054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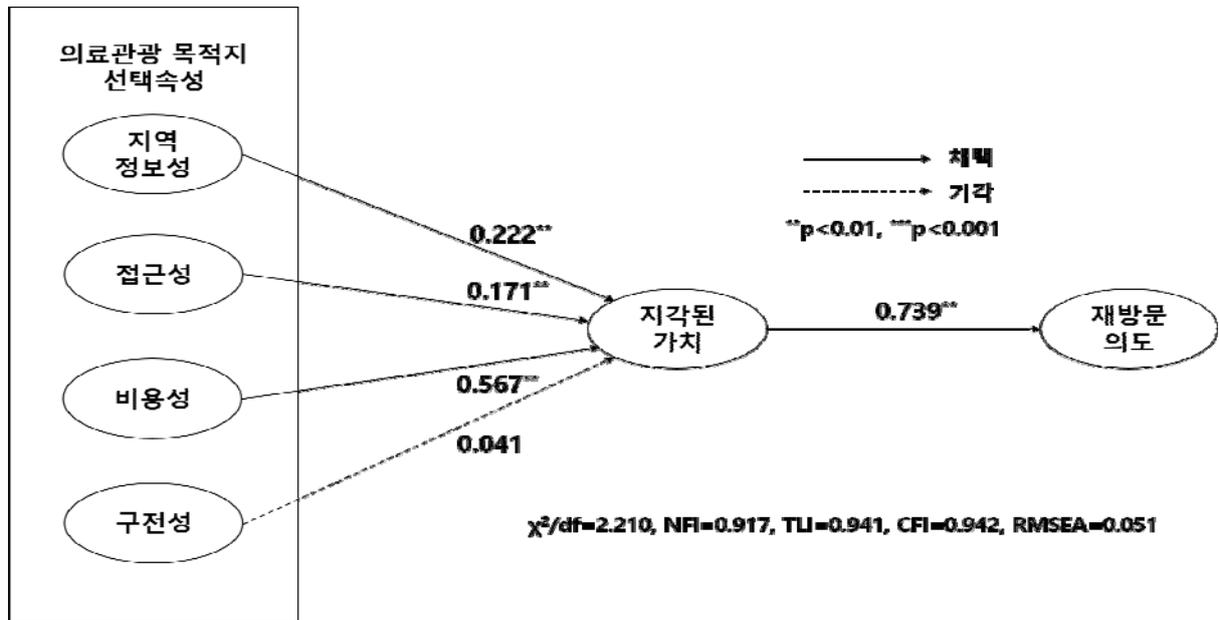
요인	지역정보	접근성	구전성	비용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 의도
지역정보	.625 ¹⁾					
접근성	.115 ²⁾	.829 ¹⁾				
구전성	.191 ²⁾	.262 ²⁾	.808 ¹⁾			
비용성	.162 ²⁾	.391 ²⁾	.112 ²⁾	.580 ¹⁾		
지각된 가치	.258 ²⁾	.437 ²⁾	.130 ²⁾	.525 ²⁾	.645 ¹⁾	
재방문 의도	.173 ²⁾	.262 ²⁾	.264 ²⁾	.332 ²⁾	.433 ²⁾	.793 ¹⁾

¹⁾분산추출지수(AVE), ²⁾결정계수(r^2)

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분석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는데(<그림 2>),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2.210$, NFI=.917, TLI=.941, CFI=.942로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RMSEA=.051로서 기준치 .05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RMSEA가 .08 이하면 모델이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모델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가설1.1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지역정보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222, 표준오차는

.071, C.R은 $2.981 > t = | \pm 1.96 |$ 으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가설1.2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접근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171, 표준오차는 .058, C.R은 $3.212 > t = | \pm 1.96 |$ 으로 나타나서 가설1.2는 채택되었다. 가설1.3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비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567, 표준오차는 .112, C.R은 $5.533 > t = | \pm 1.96 |$ 으로 나타나서 가설1.3은 채택되었다. 가설1.4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전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041, 표준오차는 .061, C.R은 $.481 < t = | \pm 1.96 |$ 으로 나타나서 가설1.4는 기각되었다. 가설2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739, 표준오차는 .078, C.R은 $9.559 > t = | \pm 1.96 |$ 으로 나타나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그림 2> 가설검정 결과

V. 결론

개인의 건강한 삶 추구에 대한 수요 확대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발전 동인이며, 의료관광은 많은 국가 및 지역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초기 의료관광시장의 관광객 이동패턴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의료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이동양상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다(Olya & Nia, 2021). 특히, 북미 및 유럽지역의 의료관광객이 아시아권 국가들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호하고 이용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의료관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관광시장의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객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의료관광 참여 후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평가와 만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및 비용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각 요인들은 측정모델로서 타당성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각 요인들의 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요인 중 비용성, 지역정보성 및 접근성의 순으로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다섯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입증하고 있어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선행변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 주관적 신념인 선택속성이 의료관광 체험 이후 발생하는 주관적 태도인 지각된 가치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다수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관광 관련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이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는 의료관광 관련 선행연구들이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과 현상에 대한 거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의료관광객의 행동과 만족의 영향변수로서 선택속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에 선택속성을 선행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비용성이 그들의 지각된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관광활동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용지불에 대한 요인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료관광객의 만족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시장의 의료관광 비용을 고려한 가격전략을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의료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과 비용의 영향관계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국내 의료관광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개인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의료관광을 포함한 관광활동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시장 환경을 고려한 의료관광 가격전략과 함께 의료관광객의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문조사 대상 병원들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당초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에 비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수가 상당히 저조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의료기관에 설문조사원을 상시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현실적 한계점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조사 참여방법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방한 중국인 여성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전체 의료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관광 송출국 현황을 고려한 표본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라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미래의 의료관광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의료관광객에 대한 의료관광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정혜 · 김진옥 · 이충기(2018). 축제 참가자의 동기, 지각된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서울 등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7), 157-169.
- 금강 · 강지원 · 고재운(2021). 5성급 호텔 중식당의 경험가치가 태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30(2), 21-36.
- 김건휘(2021). 충남 슬로시티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지식을 조절변수로. *충남연구*, 5(1), 51-76.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대석 · 서영욱(2020). 패키지관광의 관광동기가 지각된 가치를 통하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제약, 만족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4), 1-16.

- 김미경·김보경(2012).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 의료관광 참여의도와 선택속성 비교연구. *관광경영연구*, 16(3), 43-63.
- 김민경(2020). 외식 O2O 플랫폼 품질 특성이 지각된 가치, 고객만족,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4(1), 157-172.
- 김선희·전도현·전현모(2020). 초콜릿 박람회 참여 동기가 회상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살롱 뒤 쇼콜라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9(2), 423-440.
- 김영남(2020). 관광지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 관광지 이미지, 만족, 재방문의도 간 구조적 관계: 제주관광지를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20(3), 7-30.
- 김주연·안윤주(2016).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서비스품질이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 감정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600-608.
- 김현·박제은·장호성(2019). 유럽방문 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 관광지 선택속성, 관광행동간 영향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8(6), 49-63.
- 김현·장호성·황진수(2014). 관광동기 및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8(1), 219-232.
- 김혜영·연승호·임상택(2019). 의료관광 서비스접점별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31(2), 5-24.
- 남은경·이승근(2018). 수정 IPA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지 선택속성 평가 연구: 대가야역사문화관광지 고흥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7), 171-182.
- 박창연·이충기(2018). DMZ 관광의 체험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0(7), 57-74.
- 박호표(2012). 국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과 만족 및 행동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1), 131-146.
- 서민정·임은순(2021). 방한중국관광객이 인식한 SNS 음식관광정보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켓메이븐 성향의 조절효과. *호텔관광연구*, 23(2), 1-15.
- 서재연·정철·김성수(2021). 관광지 서비스 품질, 관광지 이미지 및 재방문의도 간 관계에서 한류의 조절효과: 주한 아프리카 유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5(1), 153-174.
- 서헌·이충기·이용기(2008). 지각된 가치가 방문객 만족,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강원랜드 카지노방문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7(4), 181-195.
- 성현아·이애주(2019). 지역축제에서 음식판매장 메뉴선택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식산업학회지*, 15(1), 193-206.
- 손혜·방원석(2019). 의료관광 속성과 재방문의도와와의 관계: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877-884.
- 송아남·송광인(2021).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지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4), 117-135.
- 송학준(2012). 문화관광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만족 간 구조적 관계 연구: 경북궁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5), 219-236.
- 수훈·박현지(2021). 도시 브랜드 개성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셴야시(三亞市)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3(6), 41-59.
- 신형섭(2019). 도시관광지 선택속성에 따른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익산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관광연구*, 21(2), 45-60.
- 엄지영·음영철(2019). 대만에서의 문화한류, 관광자태도, 재방문의도 간 관계연구: 태도의 매개효과. *관광연구*, 34(8), 185-202.
- 오세진·김철중(2020). 주제 공원 방문 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0(3), 165-176.
- 오은비·송나영·김태형(2019). 도시재생관광지의 공공디자인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지식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7), 103-122.
- 유기준(2021). 사립식물박물관 방문객의 방문동기가 지각된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5(1), 27-37.
- 윤병국·이은미(2012). 한국의 한방의료관광 동향과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24(6), 117-135.
- 윤성욱·김정수(2020). 스마트관광 정보기술속성이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 및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6(2), 123-143.
- 윤홍권·권혁인(2020). 소규모 어촌 관광 서비스품질과 지각된 가치, 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인과적 관계. *경영교육연구*, 35(5), 31-58.

- 이난희 · 조성욱 · 진수남(2016). 러시아인의 한국 의료관광 선택속성과 방한의도 간의 인과관계분석. *관광레저연구*, 28(1), 133-151.
- 이병관 · 김원(2020). 제주올레길 방문객의 식영관광 선택속성 요인과 서비스품질 지각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32(7), 69-84.
- 이승익(2019). 향토관광음식점 선택속성이 지각된가치와 고객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지역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8(2), 331-350.
- 이주현 · 김홍범(2018).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선택속성과 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산업연구*, 41(1), 115-141.
- 이충기(2016). *관광조사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 이현중(2020). 수정된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이용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연구. *관광연구저널*, 34(12), 17-28.
- 이희경 · 윤병국(2021). 중국인의 한국 미용성형 의료관광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 중국인 의료관광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5), 37-52.
- 임애선 · 전재균(2020). 중국인 관광객의 케이블카 체험경제요소가 지각된 가치와 체험만족에 미치는 영향.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6(12), 55-66.
- 임영이(2020). 한국의 의료관광 발전과정, 현황과 정책. *대한내과학회지*, 95(2), 61-66.
- 정소영 · 박희정 · 장희정(2019). 여행업 종사자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 인식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슬로시티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317-327.
- 정유리(2019). 한류스타 이미지와 의료관광 서비스품질이 미용성형 태도와 미용성형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잠재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1(5), 109-128.
- 정윤희 · 오치옥(2017). 관광지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 관광태도와와의 관계 연구: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2(3), 57-80.
- 정홍교 · 이광희 · 조기성 · 김상만(2012). 의료관광의 지각된 위험이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7(5), 525-549.
- 조하나 · 김명진 · 전유미(2021). 섬여행의 관광동기, 지각된 가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진흥연구*, 9(3), 275-291.
- 지봉구(2009).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관광만족, 재방문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6), 417-425.
- 진동봉 · 박현지(2021).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관광목적지 이미지, 관광만족, 재방문의도간의 영향 관계분석: 중국 국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3(1), 5-26.
- 차경욱(2021). 브런치 카페의 체험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7(4), 189-199.
- 천덕희 · 홍경완(2018). 외국인 방문객이 지각하는 의료관광 컨벤션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2(6), 109-121.
- 최일선 · 홍장원 · 이정아(2019). 섬 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속성과 관광예약이 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1(4), 121-138.
- 최정환 · 김중견(2021). 웰니스관광 선택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23(2), 43-57.
- 최혜정 · 이충기 · 오승희(2020). 여수 관광객의 체험과 지각된 가치, 장소애착 및 만족도 간 구조관계 연구: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3), 5-19.
- 축청 · 오석운(2016). 방한 중국인들의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만족, 신뢰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8(2), 94-11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 한도령(2017). 국내 골프관광지 선택속성이 다차원적 지각가치를 통한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603-613.
- 한진석(2020). 외식 프랜차이즈 주류 매장의 점포 혼잡성이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5), 362-371.
- Abbaspour, F., Soltani, S., & Tham, A.(2021). Medical tourism for COVID-19 post: crisis recovery? *Anatolia*, 32(1), 140-143.
- Ahn, J., & Kwon, J.(2020). Green hotel brands in Malaysia-perceived value, cost, anticipated emotion, and revisit intent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23(12), 1559-157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Calza, F., Pagliuca, M., Risitano, M., & Sorrentino, A. (2018). Testing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among on-board cruise environment, satisfaction, perceived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2(2), 934-952.
- Cham, T. H., Lim, Y. M., Sia, B. C., Cheah, J. H., & Ting, H.(2021). Medical tourism destination imag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revisit: a study of Chinese medical tourists in Malaysia. *Journal of China Tourism Research*, 17(2), 163-191.

- Chang, L., Backman, K. F., & Huang, Y.(2014). Creative tourism—a preliminary examination of creative tourists’ motivation, experience, perceived value and revisit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8(4), 401–419.
- Chen, C. F., & Chen, F. S.(2010). Experience quality,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for heritage tourists. *Tourism Management*, 31(1), 29–35.
- Cronin Jr, J. J., & Taylor, S. A.(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3), 55–68.
- Dagevos, H., & van Ophem, J.(2013). Food consumption value. *British Food Journal*, 115(10), 1473–1486.
- Eid, R.(2015). Integrating Muslim customer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loyalty and retention in the tourism industry: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7(3), 249–260.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ji, S., Surachman, S., Ratnawati, K., & Rahayu, M.(2021). The effect of experience quality on behavioral intention to an island destinatio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value and happiness. *Accounting*, 7(5), 1221–1230.
- Jo, D., Park, H. Y., Choe, Y., & Kim, D. K.(2019). Destination–selection attributes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 meetings: a mixed–methods study.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3(September), 61–72.
- Kaushik, D., & Rustagi, A.(2020). Medical tourism: a global industry. *Journal of Statistics and Management Systems*, 23(7), 1241–1249.
- Kim, S. H., Song, M. K., & Shim, C.(2020). Storytelling by medical tourism agents and its effect on trust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7(6), 679–694.
- O’Gorman, K. D.(2007). Discovering commercial hospitality in ancient Rome. *Hospitality Review*, 9(2), 44–52.
- Olya, H., & Nia, T. H.(2021). The medical tourism index and behavioral responses of medical travelers: a mixed–method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60(4), 779–798.
- Qu, Y., Dong, Y., & Xiang, G.(2021). Attachment–triggered attributes and destination revisit. *Annals of Tourism Research*, 89(July), 103202.
- Westbrook, R. A., & Oliver, R. L.(1991). The dimensionality of consumption emotion patterns and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1), 84–91.
- Zhang, J., Adhikari, D., Fahmy, S., & Kang, S.(2020). Exploring the impacts of national image,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on international tourist behaviors: a Nepali cas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6(4), 473–488.